

레저 스포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레저 스포츠를 육지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닌, 해양 혹은 물가에서 즐기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예전에는 골프와 승마 같이 고급 스포츠들에 이제는 해양 스포츠들이 자본이 집중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양 스포츠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레저 쪽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나라의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살려서 해양 스포츠 시장의 장점을 끌어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얼마 전 포항 앞 바다에 놀러가 서핑을 즐긴 적이 있다. 처음 해보는 해양 레저 스포츠였고, 육지에서만 스포츠를 즐기던 나에게는 새로운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가는 순간부터는 해양 레저 스포츠 만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 스포츠에도 ICT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가고 있으며, Marine Technology 라 하여 해양 산업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배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도, 배 같은 경우 하나에 수역에서 수습역을 하는데, 미적 감각의 우수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안전 상의 문제와 마케팅 적인 문제들도 고려하여 해양 산업에 일조하기도 한다. 여러 기술들과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큰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해양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배를 다시 예로 들면, 배를 정박 시켜 놓으면 여러 오염 물질들이 배를 더럽힐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기후 변화 등에 의해 비와 먼지 등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때도 그렇고 장비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만약 배가 더럽고 오염 물질들이 배를 둘러싸고 있다면 아무도 그 배를 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에서는 배를 청소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들이 key issue 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를 할 때 청소하기 쉽도록 장비의 구조가 갖춰져 있도록 하면 좋은데 배 같은 경우에는 오염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고, 친밀도가 많이 떨어진다. 만약 배가 비나 파도, 그리고 먼지 등에 의해서 쉽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리 등과 같이 첨단 신소재 물질이 배를 코팅하고 있으면 청결을 유지하기 쉬울 것이다. 최소한 방수 기능과 통신 장비 등의 관리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과학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해양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업에서의 핵심을 생각해보았을 때, 해양 레저 기술도 User-Friendly 하고 Environment-Friendly 해야 하는 것 같다. 해양 스포츠 쪽에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재난과 같은 환경들을 미리 예측하고 활발하게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해양 스포츠를 더욱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 다른 스포츠들과 다르게 해양 스포츠 산업이 오히려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더욱 친환경적인 소재들과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